

12/10/23

설교 제목: 사도 바울의 사명과 사역 목적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골로새서 1 장 24-29 절

(골 1:24)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 1:25)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 1: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골 1: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 1: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 1: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단 사상의 침투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함으로 이단 사상의 허무맹랑함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웅장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 보다 먼저 나신 이, 곧 창조주 하나님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만물을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경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선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것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는 교회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과거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현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성도로 하여금 미래에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니 성도는 하늘 소망을 간직하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의 목적을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의 목적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골 1:24)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죽을 뻔 한 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고후 11: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고후 11: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고후 11: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고후 11:26)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고후 11: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후 11:28)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쓰는 이 시간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괴로움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받는 괴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고 골로새 교회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강력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성도는 교회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염려하여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놀리는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이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못해 사도 바울이 추가로 남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치르신 십자가 고난 외에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과 같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마땅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과 사역의 목적이 곧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역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핍박할 것이나 그럼에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받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골 1:25)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행 9:1)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행 9: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행 9: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 (행 9:4)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 (행 9: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 (행 9: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 (행 9: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 (행 9: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 (행 9:9)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던 그가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 (행 26: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낸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 (행 26:17)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 (행 26: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가 받은 사명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 (행 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은 이전에 비밀이었습니다.

유대인만이 선민이었고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언약 밖의 사람인지라 하나님도 없었고 따라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된 소식,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여 새 사람 곧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 (골 1: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골 1: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러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사명을 받아 증거하고 전하는 이 비밀, 복음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풍성하여,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자신의 삶에 채워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리하여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저주 받을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기시며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Good News,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분인지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곧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골 1: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 1: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통하여 이 일을 각 성도들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힘입어 기꺼이 복음의 일꾼으로 힘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 28:18)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은 사도들을 시작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 이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까와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행 5:40)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행 5: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행 5:42)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사명 감당해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히 11: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히 11: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 11: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 11:39)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받은 사명 감당하며 살고 계신지요?

우리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등등 우리의 일상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주님 오실 때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기쁘게 그 고난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롬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명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고전 4: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